



Taeyang Metal Industrial CO., LTD

태 양 가 족



2004년 신년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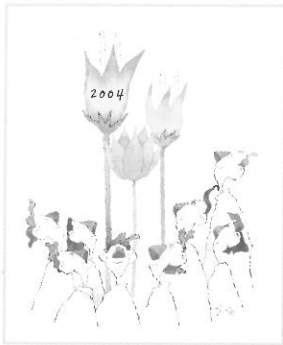
경영방침

지난 5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되도록 전 직원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도전적 자세로 혁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세계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도전!! 새로운 50년 (Challenge!! New 50Years)

정착 혁신문화, 도약 글로벌 기업

경영방침	중점 추진목표	중점 추진항목
1. 경영효율 극대화	■ 혁신문화 정착 ■ 경상이익 5% 달성	1) 새로운 50년에 대한 VISION수립 2) 혁신문화(ERP, TLZ-200, Six Sigma)의 정착 3) 효율적 경영구조 확립
2. 영업경쟁력 강화	■ 매출액 15% 증대 ■ 제조원가 80% 달성 ■ 통제성원가 20% 절감	1) 판매 다각화를 통한 매출증대 2)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3) 제품 및 원재료 재고 30% 감축 4) 생산효율 극대화 5) 품질향상 및 납기 단축
3. 국제경쟁력 강화	■ 품질 5스타 획득 ■ 품질향상 50% (불량 PPM 50% 감소) ■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	1) 중국 진출 Project의 성공적 완수 2)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수출 증대 3) ISO14000 시스템 정착 4) 국제수준의 품질 확보 5) 선진 기술동향 파악 및 적극적인 벤치마킹



희망의 2004

Contents

경영방침	2
목차	3
한우삼 회장 칼럼	4
황규홍 사장 칼럼	6
임원 신년사	8
태양뉴스	10
기획특집	14
발자취를 찾아서	18
우리의 2003년	20
리브하우스	22
우리부서 만만세	24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26
우리 함께가요	27
테마가 있는 이야기 여행	28
콩트로 보는 세상	30
발길 따라서	32
태양가족 좌우명	34
정보마당	36
사우동정	37
유머가 좋다 퀴즈가 좋다	38
세계의 걸작	39

『2004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원년의 한해가 되길』



한우삼 회장

친애하는 태양금속공업주식회사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004년 갑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태양금속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밤낮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태양금속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1954년 3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한은영 명예회장님께서 설립하신 태양자전거기업사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고객의 사랑을 신뢰로 보답하는 기업정신과 수많은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5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에서 하드웨어로는 일등 가는 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반세기 동안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73년의 1차 오일쇼크, 80년의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인 공황도 있었으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84년에는 대홍수와 화재로 인하여 기계를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이라면 98년 아시아지역을 강타한 IMF로 인하여 크나큰 기업들이 문을 닫고,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는 등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왔을 때 마다 당찬 용기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기에 동종업계를 주도하며 자리를 공고히 다져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의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으로 생존율은 16%라고 합니다. 이는 성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미완성의 성취”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가 급속히 진행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현대에는 “창업” 보다는 “수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성은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엔진을 보유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100년을 구가하고 있는 GE는 워크샵 및 Six Sigma 등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해 젊음을 유지 하고 있으며 지멘스는 “창조”를 모티브로 한 신기술로 성장엔진을 만들며 150년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요타는 지속적인 개선과 낭비제거인 “JIT”라는 생산관리 방식으로 일본의 버블경제 속에서도 1조 5천억 엔 이라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장수하기 위하여 서로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금속도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성장엔진의 동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003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품질경영, 내실경영, 글로벌경영의 방침을 황규홍 사장님과 전임 임원이 함께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마쓰다 자동차로부터 품질우수업체 선정과 7월에는 TS16949 품질인증 획득을 하였으며 11월에는 한국품질혁신대상을 수상 국내 우수 기업들과 어깨를 같이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자동차 생산의 증가가 없는 가운데

서도 10%가 성장한 1,170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중국 일기부오표준공사와의 LOI 체결과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으로 인한 GM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글로벌 경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가 전년에 추진한 변화를 위한 의식혁신교육과 4대 혁신운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

본인은 올해 “도전!! 새로운 5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영방침을

첫째 경영효율 극대화

둘째 영업경쟁력 강화

셋째 국제경쟁력 강화로 삼고 임직원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먼저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저비용 고수익의 경영기반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증가와 원재료비 상승 그리고 구매비 증가로 인한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기반이 되는 수익성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영업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영업을 하여야 하겠으며 관리부문에서는 금융비용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관리를 하여야하겠습니다.

둘째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가격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판매 하여야겠습니다.

납기지연으로 인한 항공발송과 사소한 파렴치 불량이나 공정누락으로 고객의 불만이 누적되고 회사 이익에 손실을 주게 하는 영업경쟁력 저해 요소는 말끔히 정리 되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업무프로세스”와 “물”을 지켜가며 일을 합시다. 연말에 있었던 불량캠페인도 무사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근거하였습니다. 서로간의 배턴 터치 존(baton touch zone)을 만들어 실수를 범하지 말고 신속 정확하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물건을 만듭시다.

셋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진 기술도입과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이익을 위하여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최고의 기술과 신기술을 보유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세계화된 인재가 기업을 이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SYSTEM을 만들고 전문 인재영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 여러분!

태양금속이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을 제시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일기부오표준건공사와 합작이 이루어져 해외생산기지 진출 원년으로 삼고 중국에서도 “태양인”의 저력으로 최고가는 냉간단조회사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수요처인 GM의 최초 연간 230억의 수주를 서로가 만족하는 협력관계를 통해 두배 이상의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태양금속의 글로벌화된 생산 네트워크와 영업망을 구축하여 “세계의 자동차는 태양금속의 제품으로 체결”하도록 합시다.

현대의 기업 경쟁력은 기업 가치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공룡의 거대 기업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쓰러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작지만 강한 기업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무한하게 성장해 갑니다.

올해 본인이 제시한 경영방침을 각 부문별로 실천전략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높은 기업가치와 강한 경쟁력으로 21세기 초우량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비전과 “도전!! 새로운 50년”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무한한 애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모든 임직원 여러분과 태양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5일
대표이사 회장 한 우 삼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과 운명이 바뀐다



황규홍 사장

태양가족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업적 신장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태양 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CEO로서 태양가족의 일원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지난해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인상이 깊고 바쁜 한해였습니다.

모기업의 노사갈등으로 상당기간 매출에 차질이 빚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산현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고객이 요청한 납기를 준수함은 물론 단조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 해보다 10% 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하는 성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월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작년에는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 10월에는 116억원의 매출 기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태양인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도 정성을 다해 전력투구하면 월 매출액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도 가능하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변수와 압초들이 가득합니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더 나아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리드 할 수 있어야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전사적인 의식교육 강의 중에 개구리에 관한 인상적인 실험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여유롭게 지내던 개구리가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실험 내용입니다.

변화에 대응해야만 하는 생존의 법칙을 느끼게 해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태양금속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국내 파스너 업계의 산 증인으로서 훌륭한 기업문화와 노하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기업문화와 업무 습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야를 좀더 크게 넓혀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가꾸어 나아가야 할 사항들은 소중하게 키워나가고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린 후 새로운 의식과 지혜가 50년의 전통과 함께 어울리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과 운명이 바뀐다.” 는 교훈이 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겸허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집시다. 변화된 의식으로 작업현장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제거해야 할 낭비요소와 개선해야 할 부당요소가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무다(ムダ:본질 이외의 모든 것)를 제거하면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한 성장을 거듭하여 GM, FORD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로 부상하였습니다. 왜 이럴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가져보면 낭비요소와 부당요소가 발견될 것이며 이것이 습관화 되어 돌아갈 때 우리 회사는 더욱 생동감이 넘치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회사로 변모할 것입니다.

올해는 반듯이 의식혁신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자기 자신과 동료에게 약속과 다짐을 하는 새해 아침이 됩시다. 그래서 영업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일할 맛나는 직장으로 만듭시다. 저를 비롯한 경영진이 앞장서서 혁신의 수레바퀴를 끌겠습니다. 태양가족 여러분은 뒤에서 큰 힘으로 밀어주십시오.

태양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희망찬 새해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5일
대표이사 사장 황 규 홍



[신년사]



유재성 전무

매년 이 맘때 쯤이면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This is only a beginning', '비록 지금은 시작일 뿐이나 가능성은 무한하다.' 라고 해석하면 적당할 것 입니다.

우리 태양금속은 올해 2004년 갑신년 대망의 창업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평균수명이 7

년 이하라는 통계를 접하면서 태양의 역사와 위력이 얼마나 엄청났었던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말고 또한 만족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태양금속은 지금 세계기업으로의 도약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GM의 직수출, 중국시장 진출 등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들이 속속히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을 천천히 파괴하고 '세계화'의 마음가짐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 입니다.

새로운 50년으로의 도전(Challenge)정신, 새로운 50년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자신감. 이 모두가 우리 태양금속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힘차게 외칩시다.

Let's Challenge! Let's Celebrate!

After all, this is only a beginning.



이한세 상무

새 희망을 담고 찬란하게 갑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갑신년의 밝은 태양이 태양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듬뿍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3년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며, 제2의 창업이라는 슬로건 하에 전문경영인

을 맞이했고, 4대 혁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는 등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앞의 역경을 극복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해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반세기 유구한 역사는 분명코 자랑할 만한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새로운 반 세기의 청사진을 그려야만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고만 있을 수 없 기 때문입니다.

제2의 창업이라는 크나큰 과제를 안고 두려운 마음으로 갑신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반세기의 소중한 경험과 축적된 우리의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태양가족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태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화이팅을 외쳐봅시다.

화이팅!!



차용수 상무

2004년 갑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태양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는 태양가족 모든 분들께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각자의 기본 업무는 물론이고, 회사발전을 위한 혁신활동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며, 저희 모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질적, 양적으로 회사 성장의 신 기록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면서, 더욱 치열해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업계 최고로 남기 위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고객으로부터도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품질, 가격, 적기 공급 등의 면에서 최고로 평가 받아, 태양금속이 세계 시장에서도 업계 최고의 회사로 발돋움하여, 태양금속 50년 역사에 이어 새로운 50년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영효율 극대화, 영업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의 새해 경영방침에 발맞추어, 혁신문화정착, 품질 5스타 획득,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 등의 중점 추진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태양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더욱 잘 되기를, 그리고 서로서로 더욱 밀어주고 끌어주어 다같이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임원수 이사

계미년 양의 해를 보내고 갑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신년 새해는 저희 태양금속이 창사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한해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또 사라지는 변화 속에서도 50년을 이어온 태양금속은 분명 우리들의 자랑이며,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50년에 만족하기 보다는 재 창업의 정신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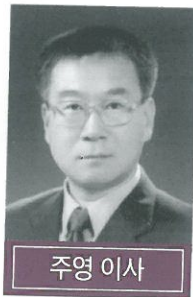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타성은 모두 버리고 변화와 혁신에 앞장섭시다. 우리는 IMF, 오일쇼크, 또한 천재지변 등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50년은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경영방침으로 미국 GM수출, 중국시장, 인도시장 진출과 부품자체에서 모듈화 가공조립 업체로의 새로운 변화를 타는 글로벌 회사로서의 원년이 될 것 입니다. 세계 우수 기업들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최고급의 품질 및 납기, 저비용의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인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태양금속은 해낼 수 있습니다. 멋지게 한번 해 봅시다.

태양가족 여러분!

한해의 계획은 연초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고 했습니다.

우리 태양가족 여러분들은 알찬 계획을 세워 모든 계획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영 이사

지난해에는 우리 회사에 많은 변화의 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운동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돋보인 한해였다고 생각 됩니다.

올해는 甲申年입니다.

甲申年은 역사에서 보듯이 변화의 소용돌이가 유난히 많은 해 중의

하나입니다. 그 예로 그 유명한 "갑신정변" 또한 갑신년에 이루어진 일이며, 이 갑신년은 개화당이 자주적 근대 국가의 수립을 열망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주권주의를 지향한 정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신년은 금(金)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라고도 합니다. 금(金)의 기운이 도래하는 해인 만큼 쇠를 다루는 우리 "태양"에게는 양기가 충만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또한 갑(甲)은 계절상으로는 가을을 의미합니다. 즉, 결실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태양"이 태어난지 선들이 되는 해이기 하며, 사람의 나이 50살이 되면 지천명(地天命)이라 부릅니다. 지천명이란 하늘의 명(命)을 받았다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변화의 기운에 맞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질러진 일은 항상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제 우리 "태양" 가족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건강을 위해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태양"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일을 저질러 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들 각자가 한 가지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벌입니다. 반드시 성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에는 변화의 기운 속에서 결실을 보장 받은 甲申年이니깐요.

연말의 풍요로운 성취감을 음미하면서 이제 힘차게 시동을 겁니다.

태양뉴스



황규홍 사장 2003년도 한일산업협력회 특별세미나 초청 강연 장면

지난 11월 28일(금)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세계 최강의 경영방식 도요타시스템 따라잡기』세미나에서 황규홍 사장이 『간판방식과 JIT시스템 도입사례 :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황규홍 사장은 강한 기업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빠른 물류 시스템의 중요성과 부품의 발주단위를 작게 하고,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부품의 흐름은 짧게, 직선화, 단순화 하여, 철저한 5S 활동 자세를 실천하고, TPM에서 설비의 효율적인 종합 관리 등을 통해 강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기업은 정글의 법칙에서 강한 기업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고 회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강조 하였다.

■ 퇴직예정자 순금 메달 증정



9월 30일자로 퇴직하는 생산2반 고재현 대리, 전상준 반장, 11월 30일자 퇴직하는 안길래 사원에게 한우삼 회장님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순금 메달을 증정하였다. 이번 메달은 수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퇴직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였다.

■ 제2회 부산국제모터쇼 참가



자동차-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2회 부산국제모터쇼가 총 20개국 25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부산 해운대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당사도 이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자동차 및 차 부품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제8회 안산시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지난 10월 12일(일) 오전 9시부터 초지운동장에서 제8회 안산시 근로자 체육대회가 실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당사는 단체 줄넘기 우승, 400m계주 우승 등으로 총 평점 400점을 획득했으나, 550점을 획득한 일신화학에게 밀려 아쉽게 준우승을 하였다.

비록 우승은 놓쳤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서 태양가족의 단합된 힘과 화합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2003년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실시

지난 10월 14일(화), 10월 21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 이틀에 걸쳐 직원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번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또는 예방을 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003년도 소방훈련

지난 10월 16일(목)과 17일(금) 2일에 걸쳐 오후 12시 50분에 회사 광장에서 소방훈련이 실시되었다. 금번 훈련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과 응급 처치 방법을 터득, 개인 및 회사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 2003년 경기도산업평화상 수상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에 공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경기도산업평화상이 10월 18일(토) 오전 10시 안양시 소재 평촌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있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산업평화상 개인부문 은상에 품질관리팀 이재용 차장이 수상하였으며 상패와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 『금속산업대전 2003』전시회 참가



금속조합이 주최하는 '금속산업대전 2003'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제1회 국제기계·금속부품전', '제8회 국제볼트·너트·케이블 및 와이어산업전', '제7회 국제주조·단

조·공업로 및 열처리 산업전' 등과 동시에 개최돼 세계 금속산업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였으며, 금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회사고사 실시



회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가 10월 27일(월) 오후 6시부터 많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회사고사는 직

원들이 안녕과 회사의 무사안일을 바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번 고사는 창립50주년 준비를 위한 행사로 당사로써 의미가 있는 고사였다.

■ 중국 완성차제조업체 방문단 내사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완성업체 방문단들이 10월 31일(금) 내사하였다. 이날 차용수 상무의 회사소개를 시작으로 공장견학이

있었으며, 간단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으로 당사와 중국의 완성차 제조업체간의 좋은 교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중국완성차와의 뜻있는 시간을 보냈다.

■ 신물류 시스템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10월 31일(금)부터 11월1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물류 시스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교

육은 아모스컨설팅그룹의 유현덕 강사가 LOSS 제거 및 낭비 제거에 관한 교육을 하였으며, 이번 교육에서 유현덕 강사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이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적절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 『대한민국 생산혁신대상』 대기업 우수공장 부문 최우수상 수상



11월 4일(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생산혁신대상』 시상식이 오전 10시부터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당사는 생산혁신 대기업 우수공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혁신을 활용, 획기적 경영성과를 창출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 산업재산권 이해(특허권)에 대한 세미나 개최



11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천효남 변리사를 초청하여 사업재산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가 있었

다. 이날 천효남 변리사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술내용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장권(디자인)은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을 보호하는 독점적인 권리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재산권을 보유해야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태양가족 등반대회 개최



지난 11월 16일(일) 노사화합을 위한 등반대회가 수리산 등막골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우삼 회장 및 황규홍 사장, 이병욱 노조위원장 등 많은 태양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산행은 태양가족이 늦가을의 정취 속에서 노사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었다.

■ Six Sigma 성과 발표회



지난 11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Six Sigma 성과 발표회가 있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10명의 Black Belt 요원들이 경합을 벌인 결과 “M12x61 콘로드 볼트 외주 가공 공정 개선”에 대해 발표한 업체협력실 조익선 대리과 “원재료 Loss 감소”를 주제로 발표한 생산관리팀 이승권 과장이 우수상을, “고장, 정지시간(강도율)감소로 가동율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생산지원과 최동각 과장과 “소형와샤 취부로링 생산성 향상”을 발표한 열처리과 손용각 과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상에는 “콘로드 볼트 피로강도 및 다이싱 수명 증대”에 대해 발표한 품질보증팀의 박익순 대리가 수상을 하였다. 이번 대상을 받은 박익순 대리의 “콘로드 볼트 피로강도 및 다이싱 수명 증대”는 취부의 길이를 늘려 작업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다이싱 수명을 증대하는 방법의 내용이었다.

■ 상조회, 태양가족 돕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조회 태양가족 돕기에서 지난 11월 21일에 사랑의 성금이 전달되었다. 이날 성금은 강구생산과 정경화 조장, 생산관리과 임대순 사원, 열처리과 이상규 사원에게 본인과 가족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염원과 함께 각각 1,000,000원씩을 전달하였다.

■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전사부문 최우수상 수상



지난 11월 25일(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03 대한민국 경영품질 대상’에서 당사는 전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경영품질 대상은 업무프로세스, 생산성, 경영 등 전 분야에서 모범적인 혁신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당사는 고객만족 및 생산

성 향상을 위해 공장혁신 “TLZ-200” 운동과 Six Sigma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대졸 공채 신입사원 면접전형 실시

지난 12월 10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인력관리의 유연성 제고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2004년도 대졸 공채 신입사원 면접이 있었다. 이날 면접은 165명의 서류지원자 중 서류전형에 합격한 38명이 면접을 보았으며, 이번 면접에서 뽑힌 신입사원은 2004년 1월에 입사할 예정이다.

■ 2003년도 추리 점등식



지난 12월 15일(월) 오후 5시 30분에 장미원 앞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리점등식이 있었다. 이날 점등식에서 한우삼 회장은 한해에 어려웠던 일들을 잘 극복하고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2004년을 제2의 창업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하였다.

■ GM Auto Part Plaza 참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자동차산업의 본거지인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GM Auto Part Plaza에 냉간단조 부문 한국대표업체로서 GM으로부터 초청받아 GM Buyer와 GM 1차 벤더 즉, 델파이, TRW, 매그너, ZF 등의 세계굴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상담회에 참가하였다. 행사기간 동안 매 30분 단위로 델파이 외 22개 업체로부터 상담신청을 받아 성공적으로 전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GM WWP 부사장(세계구매 본부장)인 Mr. Bo Anderson이 당사 부스를 방문하였다.

[태양금속 50년]

좌담회를 통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



좌담회의 처음 만남은 서먹서먹했다. 우리 회사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경영 부문과 생산 부문에서 '제2도약을 위한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와 '생산성 향상 운동'이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쉽게 우리의 아픈 부분을 들춰내지 못했다. 그 만큼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뇌리와 행동에 각인된 구습의 경험들이 우리의 입을 막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혁신이란 정말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인가 보다. 그런데 막상 경영지원팀의 류영수 팀장의 사회로 좌담회가 시작되자 우리의 좌담꾼들은 회사의 발전과 앞으로의 풍요롭고 창대한 태양금속의 창조를 위해 사뭇 진지하게 경영 분야 및 생산 분야의 현실과 미래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새로운 50년의 도전과 비전” 경영 좌담회

류영수 : 당사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위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등 비전 공유의 자리를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문제점 및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완수 : 제2의 창업을 맞아 우리는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엇보다 뛰어난 아이디어 경영,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빠른 정보 교환인 정보경영, 세계시장의 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영, 그리고 10명의 인재가 100명 또는 1000명의 몫을 할 수 있는 인재경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 현재 완성차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의 변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적 자동차 시장과 자동차의 IT가 접목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는 시점에서 우리도 완성차의 변화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하드웨어 업체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하였는데도, 많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자부심만 가지고 세계화의 물결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살길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 해야 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수 : 저희 회사가 5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사원의 창의력을 이용하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한사도 :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도 생산 할 수 있고, 다른 경쟁업체에서는 기술제휴 및 설비 투자에 힘을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뒤 늦게나마 빠른 기술력 확보 및 사업의 다변화를 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원 : 다들 저희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태양”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재를 생산하진 않지만 그래도 냉간단조 업체나 완성차 회사에서는 “태양”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용 : 지금 세계는 아웃소싱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제품을 꺼내고 가기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의 발전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성규 : 이 자리로 빌어 우리 모두가 과거에 대한 성찰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찰을 통해 제2의 창업의 의미와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미래를 새롭게 건설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글로벌 회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의식혁신 교육을 통해서 회사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태양금속의 새로운 경영이념을 수립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세계 최고의 냉간단조 대표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황규홍 : 지금까지 많은 임직원들의 당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글로벌 경영에 동감하고 있고, 또한 기술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2의 창업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목표도 불명확하여 갈팡질팡 길을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대혁신 운동은 하나의 Tool일 뿐 정확한 목표나 구체적인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Tool을 이용해 정확한 목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2의 창업의 원년인 2004년은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인재육성을 통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여 역동적인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사업의 다변화와 국제화, 모듈화로 세계에서의 우수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2의 창업은 “세계에서의 우수기업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제2의 창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2의 창업의 의미를 상기하며 열심히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도약을 위한 생산성향상” 생산 직담회

류영수 : 생산 분야의 걸어온 발자취와 좋았던 점, 고쳐야 할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생산부문에서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LZ-200에 대해 원영철 과장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철 : 현재 TLZ-200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 교체시간을 줄여 소량의 LOT를 생산하고, 재공, 재고를 줄여 LOSS를 개선하자는 설비가치올 향상, 둘째, 휴식시간 동안 무인가동을 통해 생산 Capa를 확보하여 생산성을 증대하자는 무인가동, 셋째, 비가동, 생산량 등의 관리지표를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POP시스템의 운영, 넷째, 작업 현장 관리시스템의 개선, 다섯째 JIG화 간이 자동화 즉실천 입니다.

조정훈 :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인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일본이 82, 독일이 80, 한국이 47로서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단

위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래지 않아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우리 태양 금속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며 품질과 가격경쟁력, 생산성면에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이종실 : 태양금속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목표에 대한 추진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가 시달되었을 때 확실하게 앞으로 향하는 모습은 어떤 회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점은 회사의 구성원이 다소 노령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3D업종이다 하여 점점 젊은 인력들이 우리 업종을 외면하고 있고 이는 향후 중간계층의 공백을 불러와 기술력 강화에도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준백 : 앞서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TLZ-200 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차피 궁극적으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 인력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회사는 서로간에 업무분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 같고 단점은 하루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실 :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의 변화, 즉 의식혁신이죠!

이창섭 : 다들 위기는 느끼고 있으나 내실을 볼 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신남균 : 제 생각에 사람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혁신과 더불어 변해야 할 것은 설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현장에는 직원보다 더 오래 근무를 한 30년이넘은 기계들이 아직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영 :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크게 투입을 적게 하거나 생산량을 늘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이분법적 구도도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생산외적인 기업문화, 노사관계, 금방 말씀하신 동기부여, 즉 인센티브 등 여러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현장차원에서 TLZ-200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생산기술적인 측면이나 회사 전체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확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50년간 업계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경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혁신할 기회를 놓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생산성 향상, 경쟁, 혁신이라는 주제는 생산부문만이 아닌 전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의식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철 : 현장의 작업자들 모두 변화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는 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TLZ-200운동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TLZ-200 PM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고정비는 LOSS라는 가정 하에 낭비제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봉명 : TLZ 200운동이 궁극적으로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을 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그 전개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단계를 마무리 한 후 다음 단계로 전개해야 하는 데 제일 첫단추도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니 적응이 안돼 마냥 바쁘기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우리 회사는 물류흐름부터 잡아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든 상태 즉, 내실을 기하면서 TLZ 200 운동도 펼쳐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실 : 일단 공정간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재공·재고 흐름을 지금보다 빠르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명화 : 현재 재공·재고 유지비용을 20-30%로 보았을 때 LOSS 척결은 재공·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봉명 : 물류비용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회사 입지도 물류비용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공정 설비 부족, 이로 인한 외주 의존도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활한 물류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종실 : 예전에 풍납동에서 안산으로 이전할 시 이러한 병목공정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하는데...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며 인력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백 : TLZ-200운동 추진시 우리 능력에 맞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TLZ-200 운동을 통해 우리는 실리를 챙겨야 하며 현재 상황에 맞게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컨설턴트와 경영진에게 전달되



있으면 합니다.

김봉명 : 현장 작업자 입장에서 TLZ 200운동이 작업자가 편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주었으면 합니다.

이창섭 : 편하고 쉽게 작업을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김봉명 : 우리회사는 기능자와 숙련공을 많이 키웠지만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인력은 업무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다들 다른 회사로 이적한 상태이지요!

신남균 : 요즘 친구들은 현장에서 작업할 때 완전히 세팅된 것만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팅하는 노하우도 알지 못합니다. 기능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준백 : 무엇보다 지속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영 :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성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입니다. 앞으로 회사도 교육훈련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가 더욱 더 가속도가 붙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종실 : “태양금속은 기능공을 양성하는 훈련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기능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력관리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영 :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업종을 3D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사가 필요한 회사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효율성 있게 일하는 여건을 갖춘 회사로 만드는 것이 TLZ-200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단계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발전성 있게 자신의 눈앞에 있는 폐쇄적인 벽을 깨뜨릴 때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황규홍 : 지난 50년을 우리 회사는 SCM 재료로 만드는 냉간단조 한 분야에서 선도업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 경량화에 부응하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냉간단조품도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본 도요다 자동차에서 이야기하는 ‘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근본이외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부가가치가 없는 작업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터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문 CEO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5년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태양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10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희망이 있는 태양이 되고 미래가 있는 태양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종합편]

“발자취를 찾아서”를 시작한지 일년의 시간이 지났다.

일년 동안 우리 회사의 발자취를 찾으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 온 우리의 선배와 지금의 태양가족이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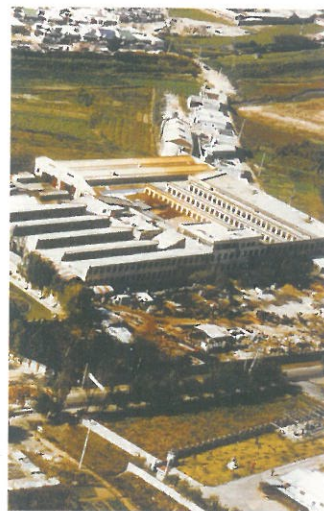
연건동 편에서 보았듯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일본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태양자전거기업사를 창립한 한은영 명예회장님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6.25동란으로 삶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차별을 두지 않는 가족애의 정신이 지금의 태양금속이 있을 수 있는 전신이 되었다. 한은영 명예회장님의 사랑은 지금의 태양금속 직원뿐만 아니라 연건동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동감하고 감동했던 기업정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족사랑의 바탕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당사는 창립 5년 만에 연건동의 20배가 되는 풍납동 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직원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 내에 3,000주의 장미를 심고, 여름이 되면 시원하게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포도밭도 조성 하였다. 이는 일상에 지친 직원들에게 마음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한은영 명예회장님의 직원사랑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풍납동 공장과 함께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84년도 공장 수해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해가 있던 날 자신의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회사 걱정이 먼저 앞서던 많은 직원들은 회사로 달려와 수해 복구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런 직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어느 회사보다 조기조업을 할 수 있었다. 수해로 인해 귀중한 서류와 많은 자료들이 분실되고 소실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남아 있는 소중한 추억들이 가장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의 삶의 터전인 안산공장은 최첨단의 설비와 장비를 구축한 국내 최대의 냉간단조 생산 공장이다. 안산공장의 이전을 통해 “재도전”과 “재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간 매출 1,000억대 돌파도 안산공장에서도 이루어졌다. 안산공장 이전 후 최대 위기였던 1998년 IMF 구제금융에서도 어김없이 태양금속의 가족애가 발휘된 순간이었다. 자발적인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근로시간 단축, 원가절감, 연월차휴가 의무사용, 복지제도 축소 등 모두가 함께 아픔을 나누는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여 단 한명의 직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IMF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우리는 안산편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업은 스웨덴의 ‘스토라(stora)’ 현재는 ‘스토라엔소’라는 이름의 회사가 700년이 되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100년을 넘긴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창업후 10년 내에 사망하는 기업의 비율이 40%가 넘고, 일본의 1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이 30년정도, 국내기업은 그 절반수준이 16년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세상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변화관리’가 탁



월했으며, 보수적인 자본조달, 기업구성원이 기업의 목표를 자신의 일처럼 추구하는 일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용을 베푸는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당사도 장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3년도 전문경영인 황규홍 사장을 영입하여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

700년이 된 스웨덴의 '스토라엔소'의 회사처럼 태양금속 또한 앞으로 700년이 훌쩍 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태양금속의 무구한 역사를 기원하며 “발자취를 찾아서” 편을 마무리한다.

태양금속이여.. 영원하라.~~

[우리의 2003년]

■ 2003년 우리의 모습

2003년 1월 시무식을 시작으로 시작한 태양금속의 한해가 마무리되고 200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은 우리 모두에게 다사다난했던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뒤 돌아보겠습니다



2003년을 시작하는 시무식 장면



창립 49주년 기념행사



창립 49주년 우수직원 시상식 장면



제38기 주주총회



사보 태양가족 봄호 우리부서 만민세 금형팀



건강합시다! 근로자 근골격 예방 교육



중국자동차 회사 당사 방문 회의 장면



봄을 맞이한 태양금속 전경



태양금속 여직원 아우회



생산과 및 금형팀 합동춘계 체육대회



노동조합 상임 간부 대의원 하계 수련회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다.



협력업체 공장혁신 세미나



안전환경 사무들의 출근수범하는 모습



제2회 부산모터쇼 참가



태양가족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중국 FAWER 자동차부품회사 투자협상 체결



한국자동차 협회 당사 방문



태양가족 등반대회에서 등반하는 한우상 회장, 황규홍 사장



태양가족 등반대회에서 직원과 함께 열띤 응원을~



회사고사장면



현대·기아철동회 지역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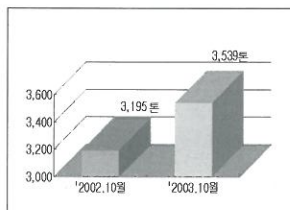


츄리점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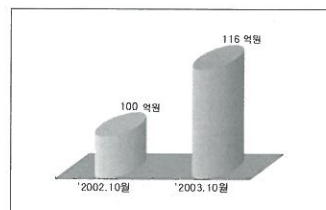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태양금속 이래 한달 매출액이 100억을 넘는 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만 합친다면 매출액 100억이 아닌 1,000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달 매출 1,000억을 실현하도록 합시다.



'02년, '03년 월 최고 생산량 비교



한해 월 최고매출액

■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실들이 하나 둘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2003년 5월 28일 마쓰다 자동차(주) 품질 우수회사 표창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인 일본 마쓰다 자동차(주)로부터 품질 우수회사 표창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은 품질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자동차회사에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인정된 상이었습니다.



2003년 7월 8일 ISO/TS 16949 인증을 획득
국제 자동차 전담법인 IATF로부터 국내 유일의 인증기관인 한국품질인증센터에서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으로 인해 저희 회사는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 수출의 날개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 9월 5일 제27회 한국경영성신대상 미래경영 부문 수상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는 제27회 한국경영성신대상에서 당사가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 및 한국경영성신대상 미래경영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 200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생산혁신대상 : 대기업 우수공장 부문 최우수상 수상

◀ 2003년 11월 25일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 전시부문 최우수상 수상
현 달에 두 번이나 경사가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니까요. 우리가 노력한 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금형팀 김동영 반장 경기도 장신 메달 수상
금형팀 김동영 반장이 생강단조 분야의 장인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장인메달은 저희 회사의 여러분들이 능력이 인정받는 상입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또 한명 아니 열명의 장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대 혁신 운동을 비롯해 전 직원의 의식혁신 교육이 있었습니다. 혁신운동과 교육을 통해 우리는 밝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혁신(Six Sigma)의 모습



품질혁신(Six Sigma)의 모습



정보혁신(ERP)의 모습



의식혁신 교육의 모습

■ 우리의 저력은 바로 태양가족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태양가족의 모든 힘의 근원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태양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양의 힘의 저력은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정년퇴직자와 늘 함께 합니다.



피로 진한 사랑을 나눕니다.



힘을 합치면 인위는 일이 없습니다.



등반대회에서 태양가족과 한자리에.



노시가 하나 된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사측에서 이병욱 위원장의 입사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태양가족의 사랑이 빛나게 하는 "사랑회"와 함께...





남자하나! 여자 넷이 모여사는 우리 집

남자 하나에 여자 넷이 함께 살고 있는 경인영업소 채수홍 과장의 가족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채수홍 과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집고 넘어갈 이야기는 바로 사내커플 이야기이다. 채수홍 과장이 품질관리 근무 당시 옆 동네에 사는 생산관리팀 안혜영 사우를 꼬드겨 장가를 가는 사건이 있었던 해가 1992년도였다. 꽃다운 나이에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한 여직원 한명이 사라져야만 했던 그 때 그 사건을 많은 이들이 가슴을 아파했다고 한다.

채수홍 과장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였던지 결혼식 날도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4월 4일 한식날 대전에서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

신부 측인 안혜영씨의 집이 안산이라 결혼식장이 있는 대전까지 친정식구가 내려와야 했다. 그러나 한식날이다 보니 성묘하러가는 사람들이 많아 길이 막혀 신부측 식구들이 꼼짝 달짝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예식 시작을 30분이나 늦추었으나, 신부측 부모님이 끝끝내 도착을 하지 못해 신부가 큰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입장을 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김포공항까지 가야했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차가 많아 비행기 이륙 10분전에 도착해서 겨우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차모과장이 도움이 가장 컸다며 고마운 마음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이 벌써 결혼 1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2년 동안 이쁜 두딸인 송화(10살)와 지혜(8살)

를 얻게 되었고, 원룸에서 어렵게 시작하여 오이도 근처에 번듯한 집도 마련하여 살고 있다. 이렇게 오붓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부인인 안혜영씨의 힘이 컸다고 한다. 채수홍 과장은 “결혼하고 1개월 만에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현재도 직장을 다니며 아이와 시어머니까지 보필 하고 있는 아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안혜영씨나 채수홍 과장이 맞벌이를 하다보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이 가족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 특히 채수홍 과장의 퇴근시간이 오후 9시 이후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고 불만을 토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매주 한번씩 외식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외식이 있는 날이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모든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함께 하고 그 시간을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서로의 애정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 가족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가 나고 힘든 일을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글로 표현하여 감정을 전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편지를 주고 받았지만,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부인인 안혜영씨는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을 하다보니 감정을 앞세우거나 폭언을 하는 일도 없고 무엇보다 한번더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며 가족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경우 편지를 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꽤

활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인인 안해영씨와 채수홍 과장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전형적인 한국 여성인 큰 딸 송화가 자신의 꿈인 선생님의 길을 차근 차근 밟아 끝내 그 꿈을 이루는 아이 되길 바라고, 개성이 톡톡 튀고 손재주가 뛰어난 지혜가 화가의 꿈을 이루길 바라며 항상 자신감을 갖는 아이들로 자라주길 바란다고 한다.

이 가족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채수홍 과장은 “지금까지 현실에 허덕이고 살기가 바빠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가족에게 띄우는 편지

요즘 전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만해서도 아니고 하는 일이 잘 풀려서도 아니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자체에 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지병인 심장병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하는 어머니에게 손녀딸들을 부탁하고 앞을 나가는 저랑 아내 모두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알록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쁜 딸 송화와 지혜야!

아빠는 말이다. 우리 송화와 지혜가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되어 주길 바래. 아빠랑 약속한 “하루에 열 번씩 뽀뽀하자.” 약속 기억하지? 아빠는 우리 딸들이 약속을 잘 지켜주으면 좋겠고, 또 할머니 말씀, 엄마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의 동반자 해영씨.

뭐라고 쓸까 고민 고민 끝에 “잘 살자.”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 ㅋㅋ

우리가 결혼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 나이를 먹어서 어느 중년 부부처럼 서로가 손을 잡고 의지하고 아끼면서 살자 그리고 고생 많이 했다.

우리 가족 모두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한 미소를 지우며 집의 가훈처럼 덕을 기우며 성실하게 살도록 하자.

여자 네명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가..

네트워크 세상을 꿈꾸는 - 경영정보팀!

7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의 경영정보팀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 프로세스 개발과 전사적 자원 관리(ERP) 추진, 전산기기 운영을 책임지는 곳으로 태양금속의 두뇌라 자부하는 부서이다.

경영정보팀은 '고정관념 탈피', '처리시간 감소',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원칙으로 언제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더 편한, 더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생각하는 '창조적 소수'의 모임이 바로 경영정보팀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7월에는 그룹웨어를 도입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0월에는 홈페이지 운영 웹 서버를 사내로 이관하였고, 11월에는 전산교육장을 개설 하는 등 최고의 Computing Power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최순환 팀장은 『정보가 새로워졌습니다. 클릭하세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사내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팀의 가장 큰 강점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끝없는 시도와 노력 그리고 성취”라 말하였다. 요즘 경영정보팀 사우들은 12월 ERP 구축 완료를 목표로 퇴근시간도 잊은 채 밤을 지새우고 있다.



우리 부서이기에 할 수 있다.

꽃이 만발한 봄이 되면 경영정보팀의 사우들은 들뜬 마음을 주체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 인 즉, 해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단합대회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경기도 광주시 유명산에서 야유회 겸 단합대회를 가졌고 작년 4월에는 서울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린 IT마라톤 축제에 전 부서원이 참가를 했기 때문이다.

매년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부서의 부대장인 강일성 과장의 권유로 IT마라톤에 참가 하게 되었고, 처음 참가한 마라톤 대회에서 부서원 전원이 5km를 완주, 강일성 과장은 10km를 완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책상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라톤을 완주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강일성 과장은 “인내 끝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얻은 열매는 달다.”는 교훈을 전 부서원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으며 내년에도 참가할 의사를 내비쳤다.



우리 팀원들은요!!!

최순환 팀장은 늘 “정보의 Data화”를 외치시는 경영정보팀의 수장, 새로운 업무를 생각하고 추진 하는데 늘 적극적이다. 강일성 과장은 뛰어난 분석력(?)으로 팀의 참모이며, 인내와 끈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가없는 메가패스 사나이이다. 무엇보다 마라톤 풀코스(42.195Km) 완주 경력이 있는 마라토너이기도 하다. 홍승진 주임은 항상 일할 땀 프로처럼, 언제나 전문가답게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improya’ 박상균 주임은 지난 상반기 사내탁구대회 우승자이자 스타크래프트 베틀넷 2000 승 등 잡기에 능수능란 잡기 왕이다. 이미진 주임은 사내 유일한 여성주임으로 지혜와 미모를 겸비한(절대로 로비 같은 건 없었음 -_-;) 부서의 살림꾼이다. 김동주 주임은 늘 독특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때로는 놀라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구박을 받기도 하는 순박한 아저씨로 통한다.

이흥기 사원은 일명 ‘흥기테크’라 불리는 PC문제 해결 전문가로 태양최고의 PC맨 이다.

이렇게 7명의 개성 있는 식구들이 때로는 강한 개성으로 인해 이견이 생기기도 하지만 서로 서로의 장점은 더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며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 팀워크를 생명같이 생각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영정보팀!

지금은 정보 혁신(ERP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멋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가운데서 경영정보팀은 중심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지금도 정보화 혁신이 성공하리라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며 일급사자는 골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The Goal!”이라 말하는 최순환 팀장의 말처럼 미래의 더 나은 정보 시스템 환경을 생각하며 힘차고 멋지게 남보다 한 발 앞서 뛰어나가는 부서 경영정보팀 화이팅!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환한 웃음소리로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
제품관리과 김영희 사수

환한 웃음으로 “아저씨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하는 김영희 사수의 웃음소리로 인해 하루의 시작이 즐겁다고 한다. 환한 웃음이 아름다운 김영희 사수가 8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편안한 오빠(?), 아빠 같은
제품관리과 박영석 과장

편안한 오빠, 아빠처럼 직원들을 가장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바로 박영석 과장이다. 직원들에게도 전혀 차별없이 대해주고 업무에 있어서도 민주적으로 처리하며, 사원 모두를 가족처럼 아끼고 존중해 준다. 또한 일에 있어서도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줌으로써 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박영석 과장이 9번째 칭찬 주인공이 되었다.



넉넉한 마음을 지닌
설비보전과 신호영 대리

곳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와 업무를 처리해주는 신호영 대리. 신호영 대리는 2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넉넉한 몸집처럼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처리하는 신호영 대리가 10번째 칭찬 주인공이 되었다.



설비박사
생산지원팀 최동각 과장

가정이건 회사이건 건실하고 호트러진 모습이 없는 생산지원팀 최동각 과장은 설비분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이다. 지금은 설비보전과에서 생산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설비보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도와주는 협동심과 의욕이 강한 최동각 과장이 11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오로지 기술력 하나만으로 세계를 제패한다. 한일산업(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한일산업주식회사는 84년 경기도 오산시 병점에서 표면처리 사업을 시작하여 20년 동안 한길 인생을 걷고 있는 회사이다. 특히 다크로 표면처리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다. 이런 한일산업이 당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3년도 포니자동차 수출로 인해 다크로 표면처리의 기술이 필요한 당사와 85년도에 손을 잡기 시작하여 벌써 18년이나 협력관계에 있다. 요즘 한일산업은 2004년에 제2공장을 안산시 목내동 702번지에 대지 1,000평에 건평 700평의 공장을 건립을 목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제2공장은 도금업계 최초로 자동차 볼트 전문 공장을 만들어 전자동무인가동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 극복과 24시간 가동을 통한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볼트 표면 기술력에 있어서 독자적인 안정제를 개발하였다. 이 안정제는 나라별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외부 유출이 거의 불가능 한 기술로 이 기술을 3명의 QC직원이 몇 년간에 노력 끝에 얻어낸 기술력의 결정체이다.

무엇보다 한일산업은 기술력 확보와 품질관리 향상을 기업의 최대 목표를 삼고 40명의 직원이 매년 돌아가며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국내 최초로 샷츠(SCHATZ) 시험기를 도입하였다. 이 설비는 볼트 체결시 체결 축력의 항복점 및 파단점이 자동으로 분석되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으로 드물게 2003년 11월에 ISO/TS 16949/2002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1년도 현대자동차로부터 SQ마크도 획득하였다. 2007년 7월 1일부로 시작되는 유럽환경 규제에 의해 크롬처리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한일산업은 한국기술연구원과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의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한일산업은 2003년 품질목표인 ISO/TS 16949 인증획득, 마찰계수 안정제 개발 및 상용화, 불량률 감소를 위한 설비확충, 검사 설비보강 : 마찰계수 측정기 외, GEOMET(Non Cr+6)처리기술 습득. 한해의 실용적 품질목표를 세워 목표달성을 통해 전 직원이 성취감에 젖어 있다. 한일 산업은 2004년도 제2공장의 무인가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에게 저단가에 정확한 납기를 맞추는 한해를 기대하고 있다.

한일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김기무 전무이사는 국내 다크로업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나 더욱더 노력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다크로 처리하면 한일산업이라는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 보는게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 회사의 전 직원 40명, 6대의 도금기로 월평균 1,500톤의 생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매출 대비 15%를 신장할 예정이다.

54년생이 말하는 '인생 50'

회사의 54년생 몇 분을 모시고 "인생 50"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에 경인영업소 정철수 부장, 생산2과 김봉명 직장, 금형팀 한호춘 직장, 생산5반 이만선 조장, 제품관리과 말띠 3인방인 김임순, 유익선, 김명숙 사우, 영업지원팀 김일혁 조장이 참가하여 재미있고 뜻있는 이야기를 가졌다.

Q. 내년이면 50살을 맞이하는데요. 인생 50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일혁 : 누군가가 "인생은 50부터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반세기를 기약하는 희망과 꿈의 터닝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조금 숨을 고르고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꿈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터닝 포인트' 말입니다.

• 김명숙 : 인생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동감 할 수 있는 자식이야기 남편이야기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이 빠르다는 것이 누구나 동감 합니다. 인생50을 살면 인생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어렵듯이나마 알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식과 남편을 위해 지냈던 시간을 자기계발을 하며 재미있게 살아 볼 생각입니다.

• 정철수 : 제가 25살에 태양금속을 입사하여 입사 25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의 삶의 반을 이 태양금속에서 보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회사를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전 25년 동안 태양금속과 함께 해온 제 삶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 이만선 : 우리네 인생 모두 직장에 몸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태어나서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느새 나이 50이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입사할 때 초등학교생이었던 아들 녀석이 군대 제대를 앞두고 있죠. 세월의 흐름은 정말 충알처럼 빠르네요.

• 김봉명 : 아이들도 다 크고 내년이면 벌써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가 있네요.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었으니, 이제 저도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입사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아직 후배 양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후배양성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려 볼까 합니다.

• 한호춘 : 나이 50이라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네요.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나이만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 이 회사의 합동결혼식 1호였던 것 같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결혼식을 못했던 제가 태양금속에서 결혼식도 하고 자식도 얻고, 앞으로도 태양금속의 발전의 기원하며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 유익선 : 부모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사고로 인해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네요. 앞으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만 보낼 겁니다.

• 김임순 : 천진했던 20살 처녀가 결혼을 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8남매의 둘째며느리로 열심히 살다보니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많이 남네요. 이제는 결혼해서 내년이면 아이 엄마가 되는 딸을 보며, 앞으로는 가족에게 좀더 애정을 쏟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 임병훈 : 열심히 뛰어온 만큼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사람이 최고 수명이 120세라고 생각하고 아직 반생도 살지 않았으니 또 다시 열심히 생을 사랑하며 살아 갈 것입니다.



Q.50년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 유익선 : “인생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얀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니까요. 50년 이전까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50 이후에는 색칠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생 50은 잘못된 밑그림을 바르게 그림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 이만선 : “인생은 청량고추와 같다.” 이 의미는 상당히 독하고 맵지만 그 뒤에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닐까요.

• 김명숙 :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도 미지수, 사랑도 미지수, 행복도 미지수, 불행도 미지수, 그리고, 미래도 미지수입니다. 이 끝없는 미지수의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임순 : “인생은 소나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으로 사시사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마련해 주는 소나무가 바로 인생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철수 : “인생은 즐거움입니다.” 태어난 순간이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살아가다보면 고통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인생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 김봉명 : 삶은 연결고리처럼 얹히고 설켜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은 죽을 때까지 인연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호춘 : 내 목표와 내 생각에 관계없이 주변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흘러져버리듯 인생은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 김일혁 : “흐르는 물처럼 수레바퀴처럼 쉬지 않고 돌고 돌아오는 한 세상이다.”

Q.마지막으로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김임순 :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성이 없어지고 조심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는 사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철수 : 예의범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가 그 유명한 東方禮義之國(동방 예의지국)이 아닙니까..

• 정만선 : 요즘 후배들은 인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또 일 하나를 오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젊은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 한호춘 : 이기심을 버리고 협동심을 기르는 사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양보하는 미덕을 갖춘 태양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유익선 :요즘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태양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신뢰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남을 신뢰해야 다른 이도 나를 신뢰하고 받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 김일혁 :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희망도, 고통도, 행복도 나에게 있으며, 항상 평상심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살펴보고 효(孝)와 예(禮)를 잊지 말고, 자기 그릇을 키우며 건강하고 매사에 자신을 갖자”





지 갑

글쓴이 김민중 작가

이씨는 아래턱이 턱 하니 빠지는 걸 느끼며 그냥 주저앉아 오줌을 갈겨 버릴 것만 같은 기분으로 멍하니 지하도 형광등을 올려다보았다. 없다. 없어. 주머니를 더듬던 그는 순간 획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뛰었다. 강형사는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 맞은 편 자리의 모자를 눌러 쓴 아가씨를 관찰하고 있었다. 제법 짹짹하게 생긴 몸매였다. 예쁘장한 소매치기가 양탈을 부리면 더 무섭긴 했지만 그렇다고 봐 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신문을 고쳐 잡았다.

김차장은 어제 밤 마누라와 한바탕 싸우고 난 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다. 그는 술이 덜 깬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남편 지갑에서 함부로 돈을 꺼내 간,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그깟 월급 몇 푼 주면서 되게 켤라고 면박을 준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며 지하철을 출발시켰다.

달리는 이씨의 눈 앞에는 순식간에 그의 일생이 펼쳐졌다. 몇 년 고생해서 모은 가게 전세금 잘 챙겨가라고, 이씨의 건망증 때문에 지갑을 안 주머니에 직접 챙겨 넣어주던 마누라의 기쁜 목소리와 함께, 어려웠던 시절 독한 마음으로 저질렀던 강도 행각에서 얼떨결에 빠뜨린 지갑 때문에 덜미 잡혀 몇 년간 감방에서 지냈던 일까지, 변변치 않은 자신의 일생이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았다.

강형사는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순간, 맞은 편 예쁘장한 아가씨의 손은 졸고 있는 옆자리 아줌마의 지갑을 가르고 있었다.

김차장은 하품을 했다. 그리고는 차량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씨는 뛰었다. 정말 열심히 뛰었다. 달리는 지하철보다 더 빨리 뛰고 있었다.

강형사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맞은 편 예쁘장한 아가씨 앞을 가로막았다.

김차장은 그래도 별 볼일 없는 자신을 만나 고생하는 마누라의 생일에 예쁜 지갑을 사서 옷 한 벌이나 사라고 돈이라도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씨는 달리는 지하철을 연신 두들기며 소리쳤다. 내 지갑! 내 지갑! 차 세워! 차 세워! 그는 달리면서 자신의 건망증을 저주하고 있었다.

강형사가 예쁘장한 손목을 나뉘 채려는 순간, 달리는 지하철 유리창을 두들기며 쫓아오고 있는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많은 슬픔을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의 눈빛이었기 때문에 강형사는 멈칫했다.

김차장은 계속해서 속도를 올렸다.

이씨는 가까스로 문턱에 손끝을 걸친 채 죽어라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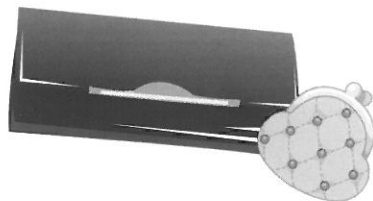
강형사가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예쁘장한 소매치기는 쏜살같이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옆 차량으로 순식간에 녹아 들어갔다.

하품을 하던 김차장은 언뜻 모니터로 승강장을 살펴보고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씨는 멈출 수가 없었다.

강형사는 슬픈 사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리다가 승강장 끝부분 철창과 부딪히며 고꾸라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씨가 정신을 차리자 옆에 부인이 앉아있었다. 병원이었다. 강형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왔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아내에게 지갑은 찾았냐고 물었다. 아내는 이 지갑 말하는 거냐며 이씨의 지갑을 보여주었다. 이씨는 잃어버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다행이라고 했지만 이씨의 부인은 무슨 소리하는 거냐며 지갑은 안주머니에 잘 있었더라며, 그 지갑에 적힌 주소로 강형사가 연락을 해서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아뿔싸! 이씨는 또 한 번 자신의 건망증을 저주하며 이불을 뒤집어썼다. 이씨는 버릇처럼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인데 가게 전세금으로 쓰려던 그 돈은 이씨의 병원비로 몽땅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좋은 일이든 굵은 일이든 뭐든 잘 잊어버리는 털털한 성격의 이씨는 이내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가게를 차릴 수도 있었는데 그는 아내와 함께 그 가게에서 남녀 벨트 및 액세서리와 지갑을 팔았다.



하얀 눈꽃 속에 추억을, 새해 일출 속에 희망을

세월의 열차가 2003년 종착역을 지나 새로
출발을 준비하는 달.

눈 덮인 산, 뜨끈한 온천, 해님이 아름다운
겨울바다를 찾아 온 가족이 함께 지나온 발걸음
을 되돌아보고 새해 설계를 위한 겨울바다 기차
여행을~

산허리를 뚫고 눈 쌓인 들판을 가로질러 멀리
기적소리가 울린다.

철마마저 떠나버린 녹슨 기차길을 걸으며 어
릴 적 향수에 젖어보고, 쓸쓸한 간이역 대합실은
눈덮힌 겨울 바다를 풍경을 내려다보며, 증기기
관차 대신 디젤열차가 다닐 뿐 여행의 설렘은 예
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강원도로 일출을 보기 위해 떠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가용을 가지고 떠나는 것보
다는 기차로 여유롭고 한적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일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확 트인 기차 차장을
바라보는 여유를 오랜만에 만끽해 보는 것도 좋
을 듯 하다.

해돋이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모래시계의 추억이 담
겨 있는 정동진과 촛대바위가 있는 추암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동진 '모래시계' 넘어 솟아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정동진은 TV드라마 모
래시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명소로 떠
올랐다. 바다는 정동진역과 한뼘' 사이로 백사
장과 바다가 펼쳐져 있어, 특히 많은 연인들이
찾는 장소로, 연말이면 철도청에서 해돋이 열차
를 운행하기도 한다. 인근에 조각공원과 모래시
계 공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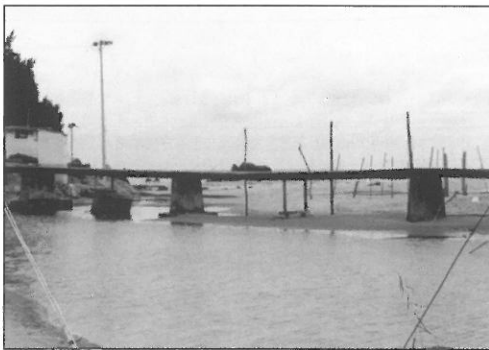
청량리역(23:00)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한
참동안 잠에 취해 가다 보면 정동진역(5:29)에

도착하게 된다. 새벽녘에 도착하는 아침 바다 바
람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춥고 싸늘한 느낌은 들
지만 그래도 넓게 확 트인 바다를 바라보면 지금
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
다. 정동진역 주변에는 민박을 알선하는 아주머
니들이 나와 "깨끗한 민박 있어요! 한번 와 봐
요!"라는 호객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 소개된 곳이라 그런지 모래
시계를 판매하는 가판대가 늘어서 있고, 각양각
색의 모래시계와 핸드폰 줄을 판매하는 모습은
여느 관광지과 같은 상업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마저 든다. 이런 상업적인 모
습도 자연의 위대한 광경을 퇴색시킬 수는 없듯
이 정동진의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벅찬 기대
감과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
람들은 한해의 있었던 모두 일들을 정리하고 새
로운 각오와 희망을 되새기게 하는 곳이 바로 정
동진이다.

〈모래시계〉를 통해 소개된 등 굽은 소나무는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훼손이 많이 되어 지금은
보호 상태에 있다. 정동진역은 바다 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차역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한다. 하얀 덩굴손처럼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 바람을 건디느라 등이 굽은 소나무..... 드
라마는 오래 전 끝이 났지만 그 바다, 그 소나무
는 오늘도 차가운 바다 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다.



추암 애국가 장면 촬영지



강원 동해에 위치한 추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출 장소로 애국가 일출장면이 촬영된 장소로 유명하다. 촛대바위 끝에 해가 걸린 모습을 제일로 꼽는다. 백사장 한편에는 파도와 바람에 깎인 기암괴석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해금강이라 부르기도 한다. 부근에는 두타산, 청옥산과 천곡천연동굴 등이 있다. 특히 두타산 무릉계곡에는 무릉반석과 삼화사 등이 절경이다.

청량리역에서(23:00)에 출발 하는 기차를 타고 동해역(5:01)에 도착하여 추암 가는 버스를 타고 20분정도 가면 추암에 갈 수 있다. 추암에는 추암역이라는 간이역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을 이용 시에는 정동진을 걸쳐 추암역까지 갈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해수욕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작은 곳 추암.

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철도 위의 간이역. 아직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어촌에는 건오징어를 팔기 위해 나와 있는 할머니 몇 분과 건 오징어를 먹기 위해 앞발을 치켜들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바닷가를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한

적하고 조용한 어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곳에는 해수욕장보다 더 유명한 촛대바위가 있는데, 이 촛대바위는 애국가의 배경화면으로 나오기도 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가볼 만한 겨울철 관광지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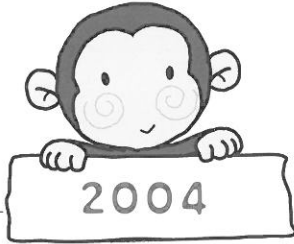
한적한 작은 어촌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동진보다는 추암의 어촌이 더욱더 정감이 느껴질 것 같다.

정동진이나 추암의 일출을 감상하고 주변 관광을 한 다음에 오후 2시나 3시 정도의 청량리행 기차를 타고 돌아 올 때 운이 좋으면 태백의 설경을 볼 수도 있다. 침엽수가 많은 태백에 눈이 내린 시골마을의 설경은 이국적인 느낌도 들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

무박으로 광활한 바다와 일출도 보고 주변에 관광도 하고 운이 좋다면 태백의 설경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차여행..

1월.. 일석이조의 기차여행을 가족과 아님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희망의 한해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기획팀

조정훈 차장 公生 | 김광두 과장 열정을 갖자 | 김현철 사원 苦盡甘來(고진감래) | 윤철환 사원 스스로에게 멋진 사람 | 심상진 과장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 | 김진경 사원 웃으며 살자. | 최현숙 사원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달아간다.

업체협력실

박찬수 부장 TY SUPPLIER LEVEL UP!! | 홍성문 차장 ROME WAS NOT BUILT IN A DAY | 조익선 대리 I'M BETTER THAN YESTERDAY | 추연근 대리 심정사달 | 한상문 대리 정중동 | 김승일 사원 자기 자신을 정복하자 | 김한용 사원 성실하다 | 윤태일 사원 속려단행 | 이준영 사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 | 이주호 사원 IF..... | 박태용 사원 한번 더 웃자. | 변관홍 사원 LET IT BE.

경영지원본부

김영지원팀 류영수 차장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박천우 과장 力進必起 | 헛ქ 나이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박원근 대리 易地思之(역지사지) | 경인규 주임 今日事今日畢(금일사금일필) | 손운석 주임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 | 배승진 사원 勢度大博(로도대박) | 일을 하는 방법은 크고 넓어야 한다. | 이진경 사원 하루를 평생처럼... | 김잔디 사원 I CAN DO IT! | 이종복 사원 일체유심조 | 조현아 사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꿈"같은 일들이 "꿈"같이 이루어진다!! | 송희숙 사원 나만의 약속을 지키자 | 김단오 사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 | 이준희 사원 최선을 다하자 | 임정자 사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 한복희 사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 김옥중 사원 시간은 돈이다. | 송순상 사원 말은바 침을 다 하자.

경영정보팀

최순화 차장 육심 | 분노! 조급! | 강일성 과장 좋은 생각 좋은 행동 | 홍순진 주임 항상, 언제나. | 박상규 주임 항상웃자! | 김동주 주임 다짐! 실행! | 이미진 주임 단순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 이흥기 사원 仁生懷放(인생환방) - 어질게 살고 원한을 버리자

구매팀

이종훈 차장 잘 잘 잘(남에게 잘하고, 나에게 잘하고, 모든 것에 잘하자!!) | 김영준 과장 열심히 하자! | 이재영 대리 내일을 만들어 가는 오늘 | 한상진 사원 Don't Stop Thinking! | 유현민 사원 Be Cool!! | 최광준 사원 NO Pain, No Gain!

재경팀

엄준열 차장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켜라. | 최동태 대리 줄길 수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 김성광 대리 희망과 꿈은 당신의 삶의 기반이다. | 이일두 대리 오늘 하루를 소중히 | 류명관 주임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생각은 도무지이다. | 김광섭 사원 행복유경 | 권미영 사원 외유내강

영업본부

박남수 부장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 정연옥 부장 修心用心(수심용심) 먼저 내 마음을 수양하고 남에게 베풀어라. | 정철수 부장 항상 평상심의 마음으로... | 박원익 부장 바로 지금 하자. (DO IT NOW) | 장성호 과장 착하게 살자. | 정창열 과장 현재에 충실하여 내일을 준비하자. | 채수홍 과장 제 일인자가 되자. | 차준배 과장 항상 새롭게 도전하자. | 신시재 대리 열심히 살자. | 김중호 대리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 | 오제철 대리 생각, 실천... | 김성수 대리 DO YOUR BEST!!! | 이정화 주임 말은 마음의 肖像(초상)이다. | 이승민 주임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 허 제 주임 행복한 삶을 위하여.... | 전승환 사원 STEP BY STEP! | 윤용석 사원 모든 이에게 웃음을... | 배민승 사원 I CAN DO IT! | 권영기 사원 牙籤大成2010(아필대성) | 김형근 사원 100번의 말은 그제 말에 지나지 않지만 한번의 행동은 실천의 기초가 된다. | 김학관 사원 八方美人(팔방미인)은 여러 방면으로 능통한 사람 | 최병호 사원 남다른 생각 준비된 미래 | 남궁진호 사원 착하게 살자. | 김문규 사원 캔처럼 찌그러지지 말고 유리처럼 깨지자. | 이자형 사원 꾸준하게... 열심히... | 조미옥 사원 水滴穿石(수적천석)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를 계속하면 결국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박미라 사원 항상 웃으며 이바지자.

영업지원팀

임종석 차장 최선을 다하자. | 정용훈 주임 후회 없이 살자. | 양승원 주임 Why not do your best? | 정정식 사원 10년만 보자. | 김경자 사원 한번더 생각하자.

물류지원팀

최용권 차장 一事三思(일사삼사) | 하나의 일을 할 때 3번을 생각하라. | 정기영 대리 천천히 꾸준히 | 윤동식 사원 初志一貫(초지일관)

생산본부

생산관리팀 | 최명화 차장 새벽녘의 계획이 하루 일을 결정한다. | 이병욱 직장 모든 일에 열심히... | 이승권 과장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김성태 대리 항상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 조진수 주임 웃으며 살자. | 선영규 사원 할 수 있다. 파이팅! | 김성일 사원 相如(상여) (상견역) | 이정환 사원 늘 감사하며 항상 새롭게. | 최철용 사원 흐르는 강물처럼 | 엄미경 사원 항상 지혜롭고 명랑하게 | 유현식 반장 모든 일에 신속 정확하게! | 이명관 대리 一心團結(일심단결) | 임준기 반장 성실하게 | 홍치호 조장 최선을 다하자! | 이재철 조장 하루 일과를 보람 있게!! | 김중근 조장 최선을 다하자 | 정종식 사원 후회 없는 하루 | 주순진 사원 열심히 살자. | 김 철 사원 慈悲無敵(자비무적) | 임규환 사원 人生不樂(인생불락)이면 如冥冥夜行(여명명야행)이니라 | 김창수 사원 정신일도 하사불성 | 이대순 사원 신뢰하고 사랑하자.

인전현경과

민광희 차장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 강원식 대리 깨어있는 하루 | 장은수 대리 남의 작은 향상에도 칭찬하자 | 우준희 주임 Ignorance is not innocence, but sin | 전

보현 사원 최고보다는 최선을~ | 김성진 사원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되자! | 배윤진 사원 오늘 걷는 이유는 내일 뛰지 않기 위함이다. | 황명찬 반장 착하게 살자 | 조도현 조장 남을 존중하는 마음 | 박근석 조장 모든 일에 최선을 | 서정수 사원 굵고 짧게 그리고 유연하게 | 조운호 사원 크게 생각하되 작은 기쁨을 즐기자 | 강성실 사원 성실하게 살자 | 이재옥 사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 | 이재은 사원 웃음을 잃지 말자 | 진형태 사원 근면성실

설비보전과

이창설 직장 驕虎之勢(교호지세) | 이상규 과장 一刻千金(일각천금) | 신호영 대리 양급택목 | 이강두 대리 배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 김장길 대리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소중히 하자 | 김명장 반장 靑出於藍(청출어람) | 김철반장 긍정적인 정신자세 | 전용식 반장 우리 모두 함께 살자. | 박재완 반장 장인정신으로 일하자. | 정재영 반장 하면 된다. | 안효길 반장 착하게 살자. | 이진경 반장 목표를 갖고 살자. | 양희철 반장 잘 먹고 잘 살자. | 배만선 반장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자. | 송진식 반장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하자. | 정종호 조장 최선을 다하자. | 이종노 조장 讀書三到(독서삼도) | 김도일 조장 머리는 차가운 가슴은 뜨겁게 | 장보광 조장 착하게 살자. | 조일선 조장 약속을 잘 지키자. | 안광훈 사원 왜 사는 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라. | 엄승덕 사원 初志一貫(초지일관) | 신재현 사원 시간은 생명이다. | 오준배 사원 후회없는 삶을 살자. | 이성희 사원 열심히 살자. | 이동우 사원 최선을 다하자. | 김주영 사원 三事一言(삼사일언) | 황도순 사원 오늘에 충실하자. | 한기수 사원 꿈을 실천으로 옮기자. | 천복남 사원 근면 - 성실하게 살자. | 표종영 사원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 황진도 사원 주위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생산지원과

최병은 부장 인생은 미완성, 완성을 위하여! | 최동국 과장 항상 다음을 생각하는 여류 | 이영석 주임 인간답게 | 강종규 사원 자신감 | 김상운 사원 인감대 | 이은미 사원 잘 웃고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 이광민 사원 無言實錄(무언실록)/百忍克難(백인극난) | 이종실 직장 웃으며 복이 와요! | 김봉명 직장 인생을 보람 있게~~ | 변병철 조장 최선을 다 하자. | 김성훈 사원 나를 잊고 살자 | 유대환 사원 하자 하면 된다. | 이영하 사원 열심히 살자. | 고정복 사원 기본을 지키자. | 박성열 사원 정도를 지키자.

생산1반

임동규 대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 최형조 반장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 박상규 사원 No Problem | 이종민 사원 근검절약 하자 | 김중철 사원 예의 바른 생활!배려와 사원 바른 생활 | 최종재 조장 말보다 행동 실천하는 삶 | 남병우 반장 인내 하며 살자! | 신현진 사원 내가 최고다. | 안원환 반장 된다는 자신감을 갖자. | 김준만 사원 후회 없이 살자. | 임정호 사원 3초 생각 후 행동하자. | 이평희 반장 꿈을 현실로~ | 권영수 사원 멋지게 살자. | 김중오 사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자. | 박진영 사원 착하게 살자. | 김영길 반장 용에 꼬리보다 배에 머리가 되고 싶다. | 방성룡 사원 하루를 반성하는 자세를 갖자. | 김승현 사원 현실에 충실하자. | 심상범 사원 필요한 사람이 되자. | 정일진 사원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자.

생산2반

고재현 사원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자. | 전병호 반장 최선을 다하는 오늘! | 허영만 반장 내가 먼저 실천으로 임 한다. | 강기훈 사원 실천을 하자. | 권오광 사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 강현옥 조장 최선을 다하자. | 변우희 반장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 김기호 사원 인내 | 박수원 사원 착하게 살자. | 배상진 사원 빠르게 살자. | 무문영 사원 최선을 다 하자. | 신철홍 사원 솔선수범 | 전상준 사원 근면, 성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 신현철 반장 항상 즐겁게 새로운 마음으로 | 이원선 사원 현실에 충실하자. | 유동식 사원 목표를 향해 달려라. | 김재환 사원 일상을 좋은 생각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 김기만 사원 내일을 위하여 | 하용수 사원 근면, 성실 정정당당하게~~ | 조재욱 반장 열심히 살자.

생산3반

박형식 대리 工夫不如人門(공부부여인문) : 공부보다 먼저 사람이 되라. | 조상래 사원 최선을 다하자. | 김성용 사원 부자가 되자. | 유어준 반장 후회없는 하루가 되기를 | 이예란 사원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되자. | 송희자 사원 착하게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 | 이강현 사원 돈을 많이 모으자. | 황춘자 사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자. | 이명준 사원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자. | 신상만 사원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 신영수 반장 오늘 할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 오교희 사원 짧은 시간을 가버려 해서 안 된다. | 이준백 조장 인간답게 살다가 멋있게 죽자. | 이진실 반장 성공을 위하여 뛰자. | 정경선 사원 止所不欲 勿施於人(장소부욕 물시어인) : 자기하고 싶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생산4반

최용권 반장 실천하는 습관 속에 생활하자. | 이인희 사원 어렵고 힘들 때 줄줄 줄이는 사람이 되자. | 이명희 사원 항상 즐겁게 살자. | 전태우 대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지 말라. | 정인철 반장 함박웃음이 모두에게 | 강준길 반장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중요의 씨를 뿌리고모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는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즐거움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건강을 풀어주고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 허남수 사원 바른길이란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다. | 김판준 조장 웃으면서 일 하자.

생산5반

김용재 대리 初志一貫(초지일관) | 임귀훈 사원 성실 근면하게 살자. | 김맹수 사원 근면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 임재홍 조장 오늘 같은 내일은 없다. 항상 최선을 다하자! | 오원진 조장 참고, 웃자. | 현관용 반장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법사에 감사하자. | 모병철 사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 성기훈 사원 후회 할일을 하지 말자!진대선 사원

실패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 이재용 사원 진주는 진흙 속에서 나온다. | 오용은 사원 하루 하루 즐겁게... | 김은식 사원 느껴라! 배우라! 하라! | 박광용 사원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다. | 황정필 조장 말보다 앞선 행동으로... | 정종택 사원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 김희중 조장 칭찬을 하며 살자.

생신6반

강태웅 대리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 이훈범 사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작업을 하자. | 한준만 조장 성실한 마음과 행동을 일지 하자. | 정 귀 사원 나는 살아있다. 컴테기 속 하나의 작은 떼 일지라도... | 서상돈 조장 모든일에 성실과 최선을. | 김경택 사원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실하자. | 황규조 조장 성실하고 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 김영순 사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 오병희 사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 안정식 사원 항상 착하고 맑은 마음으로 일하자. | 김춘옥 사원 근면, 성실, 절약 정신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 서영원 사원 최선을 다할 때 후회도 없다. | 박은선 사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박완중 반장 인내는 곧 나의 삶이다. | 송천호 사원 모든 일에 최선을~ | 김용인 조장 아주 작은 일이지만 행복해하며 살자. | 최광식 사원 한 할 수 있다. | 오세정 사원 최선을 다하자.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 심지향 조장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자. | 서래원 사원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자. | 강동석 사원 항상 즐겁게 생활하자. | 모병서 사원 초심을 잃지 말자. (항상 신입사원 같은 마음으로~) | 남용성 사원 생각하며 살자. | 최규원 사원 항상 최선을 다하자. | 광경호 조장 모든 일에 충실하자. | 김장우 조장 나의 길은 거칠 것 없이 있다!! | 조재경 반장 용기 있는 자만이 꿈이 이루어진다. | 임호빈 사원 자신이 선 자리에 최선을 다하자. | 이민형 조장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하자. | 김 롱 사원 함BO하고 놀며 놀자. | 양준조 조장 머리로 생각하고 온몸으로 보여주자. | 이민규 사원 항상 웃으며 생활하자.

열처리과

손용각 과장 天人所指 無病以死(진신조지, 무병사) | 송병택 직장 미래를 향한 도전, 도전 | 문동태 주임 天運漸新(천운상신):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자. | 송병현 반장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도전 | 우종수 반장 盡人事 待天命(진인사 대천명) | 봉원일 반장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자. | 김석봉 반장 시작한 일 최선을 다하자. | 강병길 반장 건강하게 살자. | 강상구 조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 박남수 조장 무결점에 도전하자. | 김내환 조장 비관과의 전쟁 | 김병석 조장 긍정적 태도로 웃으며 살자. | 김대형 사원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자. | 임희철 사원 인생역전, 대박인생 | 오수원 사원 밝은 마음을 갖고 살자. | 유동규 사원 믿음, 기쁨, 행복 | 민남기 사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 | 심재근 사원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자. | 최진석 사원 모든 일에 프르가 되자. | 이상규 사원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 홍병우 사원 길다 아니면 가지를 말라. | 김정훈 사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 성경구 사원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자. | 장성복 사원 등글게 살자. | 김태환 사원 앞만 보고 살자.

표면처리과

김재형 차장 지식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 | 황병수 직장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 하승엽 주임 크게 생각하되 작은 기쁨을 즐기자. | 김용식 반장 열심히 일하며 건강하게 살자. | 이재용 반장 세계 최고가 되자. | 유홍용 반장 성실하게 살자. | 박병삼 반장 건강한 마음은 미래의 태양이 된다. | 권순일 조장 더 잘하자. | 임보택 사원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한다. | 박종순 사원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 이문택 사원 착하게 살자. | 송병호 사원 인내하며 최고의 내가 되자. | 김세균 사원 모든 생활을 즐겁게 하자. | 문정선 사원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생활하자. | 이윤구 사원 내일은 결코 없다. | 조남신 사원 진실되게 살자. | 안기원 사원 노력의 대가는 성공 | 정영석 사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 정종택 사원 말보다 실천하는 생활을 하자. | 설정석 사원 비바람에 살지 말자. | 유근용 사원 목표 앞에 흔들리지 말자. | 조용대 사원 2004년은 나의 해. | 연기순 사원 저축을 잘하자.

제품관리과

박영석 과장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자. | 조병기 대리 오늘을 성실하게... | 이춘봉 반장 거짓없이 숨김없이 살자. | 육만철 조장 깨끗한 생활을 하자. | 이은도 조장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자. | 한영태 조장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자. | 윤원상 사원 진실되게 살아가자. | 김병석 사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자. | 양정필 사원 태양처럼 밝은 세상 웃으며 살자. | 이효숙 사원 하루 하루 열심히 살자. | 김주환 사원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자. | 이순옥 사원 오늘 같은 내일은 다시오지 않는다. | 박규서 사원 후회없이 하루를 보내자. | 이순덕 사원 나 자신을 늘 반성하며 살자. | 신영태 사원 부지런하게 살자. | 권호동 사원 신뢰받는 사람이 되자. | 박양선 사원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자. | 임정연 사원 화사일은 내 일이다. | 김 경 사원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자. | 김진호 사원 일에 최선을 다하자. | 송재성 사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 김옥자 사원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자. | 한영미 사원 모든 일을 신속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자. | 강준희 사원 나의 인내와 노력은 성고의 지름길이다. | 임정희 사원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자. | 김광수 사원 현재 보다 미래를 생각하자. | 유익선 사원 늘 신뢰받는 삶을 영위하자. | 김용호 사원 열심히 노력하자. | 김명숙 사원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자. | 김임순 사원 착하게 살자. | 김영희 사원 내가 허비한 오늘은 어제 죽은 이의 내일이다. | 안길래 사원 항상 즐겁게 건강하게 살자. | 김태환 사원 참되고 진실 되게... | 서일기 사원 아름답게 살자. | 강종숙 사원 오늘을 다스리자. | 정수현 사원 근면, 성실 | 이상호 사원 도전은 경계가 없다. | 김기주 사원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 윤화순 사원 현재에 충실하자. | 김근자 사원 많은 바 최선을 다하자. | 김규봉 사원 즐겁게 살자. | 최용덕 사원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 이용범 사원 후회 없이 살자. | 한형수 사원 최선을 최선을 다하자. (Best of Best) | 이상용 사원 착하게 살자. | 강기호 사원 시간은 돈이다. | 최성일 사원 삶에 최선을 다하자. | 장영호 사원

정직하게 살자. | 방경미 사원 사람은 좋아하는 일 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일에 노력해야 한다. | 김남희 사원 열심히 살자. | 박소연 사원 열심히 살자. | 이신자 사원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 강장순 사원 즐거운 생활

강구생선과

이일주 대리 맑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하자. | 김선옥 사원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사랑, 희생, 봉사 | 이기숙 사원 열심히 하자. | 진화숙 사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 남지진 사원 가족이 행복 합시다. | 안병현 조장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 이정희 조장 하면 된다. | 이덕근 반장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자. | 오주현 사원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자. | 현경만 사원 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 강석환 사원 잘먹고 잘살자. | 임양호 반장 실패를 두려워 말자. | 황병규 사원 하루를 보람있게 살자. | 최현주 조장 무슨 일이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자. | 김찬수 대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 조성의 사원 언제나 흐린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 백위훈 반장 기본에 충실, 모든 일은 내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품질관리팀

이재용 차장 변화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요소라 생각한다. | 최성규 대리 원칙 · 기본 · 소신 | 김세현 반장 三事一言(삼사일언) | 김도영 사원 큰 성공보다 작은 성취를 모아 가자. | 김석문 사원 끝은 또 다른 시작점 | 이종수 사원 Think Big/さいこまで | 윤태호 사원 나는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서 싸운다. | 이 용 사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이다. | 최상일 사원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생각하자. | 남영모 사원 근면, 성실, 봉사, 배려, 착하게 살자. | 구지완 조장 나태하거나 게으른 자만이 피곤함을 느낀다. | 차준성 사원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최준호 주임 위대한 영혼은 묵묵히 고민한다.

기술연구소

기술개발팀 | 최현중 부장 DO MY BEST!! | 문형록 대리 가장 높은 곳에 뜻을 두어라. | 송태영 대리 조이자! | 이충열 대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 강민식 대리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자. | 최광석 대리 최선을 다하자. | 이정구 주임 아무리 사소한 노력이라도 시간을 들여 지속하면 놀랄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 선우현희 주임 굳어진 습관은 끈질기다. | 손성식 주임 상식 | 성용원 사원 성실함은 두뇌를 앞지른다. | 최진동 사원 새는 알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 김용준 사원 지혜의 눈을 떠라. | 이장석 사원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자는 불행할지 몰라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축복 받은 자다. | 이도철 사원 의지할 만한 것은 남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다. | 구재환 사원 Do not haste but no Rest. | 윤순희 사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즐겨라. | 이철호 사원 버리고 새 것을 입자. | 박기영 사원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금형팀

윤철호 차장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자. | 한호준 직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최고가 되자. | 한사도 대리 자신을 사랑하자. | 김동영 반장 배우는 마음 보람 있는 삶. | 박상용 반장 최선을 다하자. | 박윤진 반장 소금과 같은 사람. | 이홍성 반장 모든일을 내일 같이. | 이한희 반장 책임 그리고 희생과 봉사 | 임용재 조장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자. | 김재주 조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 우경완 조장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자. | 박동주 조장 정신 일도 하사불성 | 홍완기 조장 다시 뛰는 인간나 | 김대중 사원 보람있게 살자. | 박상덕 사원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여 내가 만든다. | 한동민 사원 하루하루를 즐겁게 | 배상복 사원 늘 행복하게 살자. | 김아름 사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나를 위해 노력하고 부딪쳐 보자. | 박진형 사원 할 바에는 잘하자. | 성대만 사원 바르게 살자. | 박장선 사원 설계하자. 반성하자. 재설계 하자. | 박춘희 사원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자.

품질보증팀

박현희 차장 "신나고, 재미있고, 씩씩하게" | 이주현 과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되지 말자. | 김동문 과장 등글게 살자 결정은 생각의 3승 | 김태웅 대리 지금 이순간도 지나면 평생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 이두환 대리 나는 할 수 있다. | 최재형 대리 성공의 열매는 부지런함에서 있다. | 박익순 대리 진정 훌륭함을 연마하자. 진정 뛰어난 연마한다. | 강문호 주임 初心으로~ | 백주현 주임 長江不流(강강불식) | 박재찬 주임 미래에 대한 도전. | 전명국 사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 전경옥 사원 꿈은 이루어진다. | 김개호 사원 日新又日新 | 조재호 사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 황준식 사원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 박동훈 사원 "살을 즐기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최선을 다하자." | 이순주 사원 약속은 약속이다. | 권순옥 사원 일일신(매일매일) 반성하자.)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지원팀 | 이지영 부장 10년 안에 사장이 되자. | 정동찬 부장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 오종의 부장 智慧之子 使父親樂 愚昧之子 使母親憂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 강명석 과장 忠義順: 참되고 의롭고 순하게 살자 | 박준용 사원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 강은혜 사원 遮斷禁欲(속단금욕) | 유혁주 사원 웃으며 일하세.

TLZ-200 PM팀

박우식 부장 강하게 바르게! | 원영철 과장 오늘도 열심히! | 최갑경 주임 雞口牛後(계구우후):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는 뜻. 곧 큰 집단의 말씨보다는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낫다는 말. | 이익덕 사원 COOL하게! 가슴은 뜨겁게!



행복한 고민 설날 세뱃돈 주기

어릴 적 설날은 어머니가 부엌의 모든 그릇들을 꺼내 놓고 깨끗이 닦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설날이 가까워 올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들뜨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이윽고 하루 전날이면 이번 설에는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까, 세뱃돈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설레임으로 잠조차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그

세뱃돈이 설날의 큰 골치덩이가 되어 머리를 짓누른다. 자식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줄망줄망한 조카 녀석들, 그리고 올해 대학 들어간 장조카에게는 얼마를 줘야 한단 말인가. 끄응~ 부모님 용돈은 또 얼마를 드려야 하나? 하지만 화폐가치가 아무리 하락했다 하여도 작은 아이디어로 아이들 세뱃돈을 요령있게 줄 수 있다는 사실.

▶ 작은 금액을 정성으로 카바한다

금액이 적어도 주는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면 감동이 따르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뽀뽀한 신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권은 미리 은행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오천원 권과 천원 권을 많이 바꾸어 놓도록 한다. 그리고 예쁜 종이두루마리나 봉투를 준비한 후 그 안에 넣어주면 금상첨화.

▶ 가장 고학년을 기준으로 정하라

보통 집안마다 다르지만 대학교 1,2학년 까지는 세뱃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은 집은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세뱃돈을 준다. 고등학생을 예를 들어 2만원으로 정하면 자연스럽게 중학생 1만원, 초등학생 오천원에서 1만원, 저학년은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그 기준이 정해진다. 이때 세뱃돈이 적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좀 불멘 소리를 할 지언정 고등학생 형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장유유서의 전통을 이 때 써먹는 것이다!

▶ 소액 상품권도 이용하면 좋다

우리의 전통은 원래 세뱃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덕담이나 간소한 음식을 내놓았다. 이런 취지도 설명하고 유익한 한 해를 빌어주는 의미에서 도서관 음반, 공연관람을 할 수 있는 소액상품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체험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상품권이 화폐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물론 5천원 정도의 현금과 함께 주는 것이 포인트.

진심으로 입사를 축하합니다.

김승현 생산1반 / 유동식 생산2반 / 이재용 생산5반 / 이영하 생산지원과 / 이명희 생산4반
신승조 생산5반 / 우문영 생산2반 / 임철재 생산1반 / 김종호 생산6반 / 윤성주 영업지원팀
허 승 생산6반 / 정청일 생산4반 / 장병천 업체협력실 / 사홍진 생산2반 / 이용재 강구생산과
김현수 생산5반 / 박재현 생산1반 / 김명종 생산6반

승진 및 전보

12월 22일자

제품관리과 강창순 사원, 박소연 사원 영업지원팀으로 인사발령.

2004년 1월 1일자

주 영이사 생산본부 부분부장에서 생산본부장(공장장)으로, 민광희 차장 안전환경과장에서 안전환경팀장, 홍성문 차장 업체협력팀장, 최용권 차장 물류지원팀장에서 영업지원팀장, 김봉명 직장에서 기장 승진 및 생산1팀장, 김제형 차장 표면처리과장에서 생산2팀장, 오중희 부장 해외사업지원팀장에서 원가팀장, 한사도 대리 과장 승진 및 금형팀장, 장성호 과장 차장 승진 및 경인영업소장, 최병운 부장 생산팀장에서 울산영업소장, 권오신 과장 차장 승진 및 호남영업소장, 이근택 차장 부장 승진 및 영남영업소장, 김성태 대리 과장 승진 및 생산관리과장, 최동각 과장 생산지원과장에서 설비보전과장, 이승권 과장 차장 승진 및 생산지원과장, 임동규 직장대리 직장 승진 및 생산1과장, 하승엽 주임 대리 승진 및 표면처리과장 직무대리, 최성규 대리 과장 승진 및 품질관리과장, 김세현 반장 과장대리 승진 및 검사과장 직무대리, 박우식 부장 TLZ-200 PM팀장에서 공장합리화 TF팀장, 이창섭 직장 기장 승진 및 공장합리화 TFT 근무, 임종석 차장 영업지원팀장에서 영업지원팀 근무, 윤철호 차장 금형팀장에서 원가팀 근무, 정철수 부장 경인영업소장에서 경인영업소 근무, 박원익 부장 강구영업소장에서 경인영업소 근무, 이윤환 과장 울산영업소장에서 영업본부실 근무, 정기영 대리 물류지원팀에서 생산관리과 근무, 정창렬 과장 차장 승진 및 경인영업소 근무, 원영철 과장 차장 승진 및 TLZ-200 PM팀장, 박천옥 과장 차장 승진 인사가 있었음. 이하 생략

서클동정

사랑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인 서클 사랑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18일, 22일 3일에 걸쳐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강구생산과 정경화 사원을 돕기 위한 일일 찻집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태양가족의 따뜻한 마음으로 일일찻집이 성황리에 마쳤으며, 모인 수익금을 정경화 사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태양가족 여러분의 온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머가 좋다. 퀴즈가 좋다

aeyang Metal Industrial

Quiz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세로

1. 김자옥의 노래. 00는 외로워.
2. 남에게 금전을 꾸어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3. 강원도 영월에 흐르는 강으로 래프팅으로 유명.
4. 가고 오고 감. 발길.
6. 물건의 모가 있는 자리.
8. 김유신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화랑 정신을 통해 국가관을 심어주는 한국 연극.
9. 품위 있고 안전한 여자. 김희선 교수 주연의 드라마 제목.
10. 박신양 전지현 주연의 공포 영화. 000 식탁
11. 엠파스 지식 거래소의 광고 모델. 양배추와 000박사.
12. 권상우와 이정진 주연으로 현재 촬영 중인 영화. 0000잔혹사.
14. 임금님의 밥상.

가로

2. 영화감독 출신의 현 문화관광부 장관.
5. 모락이나 음모 따위를 주장(主掌)하여 꾸미는 사람.
7. 남성 듀오 클론의 구성원은 구준엽과 000.
9. 음식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11. 몸집이 작은 말 종류. 제주 000.
13. 탄력이 강해서 튀어 오르는 것. 영어로 spring.
15. 남자를 낮추거나 남자아이를 귀엽게 부를 때 쓰는 호칭.
16. 발 없는 말이 00를 간다. 속담.

유머가 좋다

아담이 이브 몰래 여자를 만들어 바람을 피우다
들켰다. 이브가 하느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아담이 심하게 야단을 맞
았다.
기분이 몹시 상한 아담은 이브에게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했다.
"두고보자! 아직 갈비뼈는 많으니까..."

화장실에서 생긴 일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근무시간에 과장의 눈치를 피해 조심조
심 화장실에 갔다. 변기통에 앉으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만큼 시원
해지기 시작한다. 그 때 바로 옆에 누군가가 내게로 말을 건다.

'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래도 인사를 받고 대답 않
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예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하셨습니다까?'

아니 화장실에서 밥 얘기를 하다니.... 그래도 상냥한 목소리에 이상
한 감정을 억누르고 대답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잠시간 옆에서 말이 없다. 그러다 나온 한마디에 나는 충격 먹었다.

'저. 전화 끊어야겠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대답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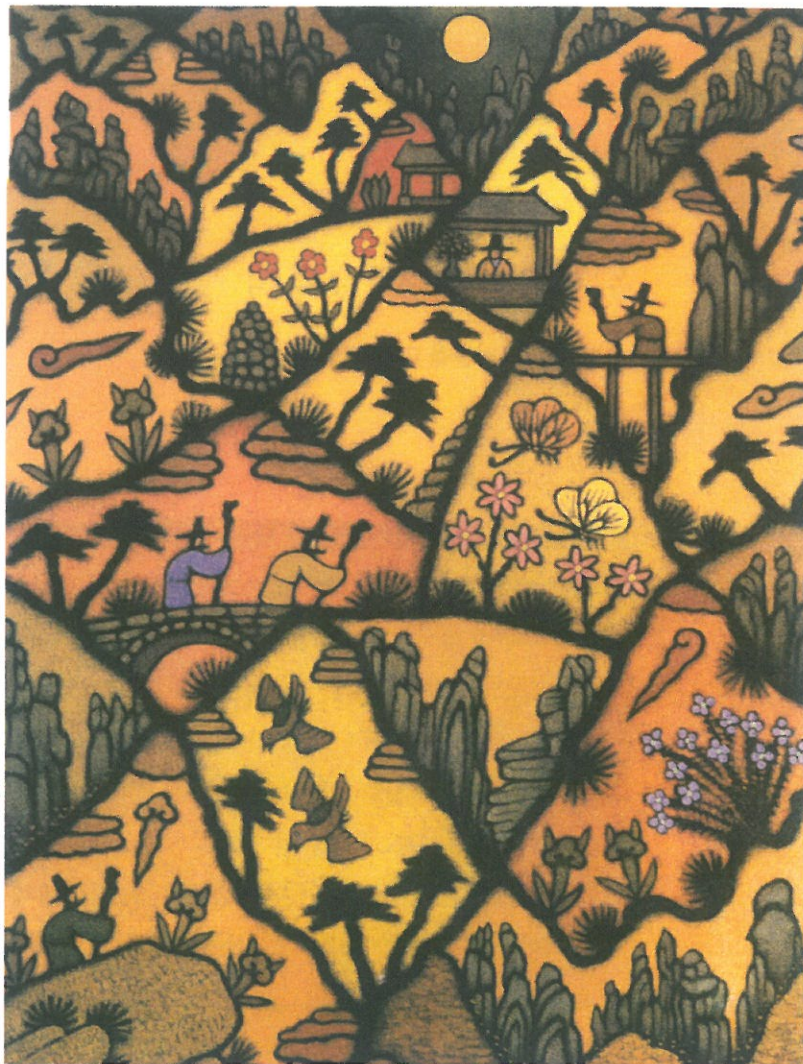
Humor

여름호 정답

1. 삼각형의 개수는 40개
2. 절대 만들 수 없는 도형은 2번입니다.

퀴즈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금형팀 박진형 사우 / 금형팀 박춘희 사우 / 금형팀 성대만 사우 / 금형팀 임용재 소장
/ TLZ-200 원영철 과장 / 안전환경과 이재운 사우 / 영업본부실 박미라 사우 / 울산
영업소 윤용석 사우 / 호남영업소 권영기 사우 / 경인영업소 남궁진호 사우



이희중(1956년~)의 첨첨산중

풍류미술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이희중은 옛 조상들의 멋과 낭만, 그리고 한국인이 고유사상을 집약적으로 화폭에 담은 21세기 풍류미술인이다.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0년넘게 만화를 모티브로 가장 한국적 정신세계의 원형을 그리고 있으며 진정한 한국미술의 깊은 멋과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그림설명 :

봉우리들이 중첩된 첨첨산중에 선비가 지팡이를 쥔 채 어딘가를 향해 종종 걸음을 옮기고 있다. 봉우리들은 저마다 노송이나 괴석을, 정자나 돌무더기 탑을 품고 있으며, 화사한 꽃다발을 키워낸 봉우리에는 나비도 함께 날아든다. 봉우리의 가장자리를 따라 둥근 달이 화면을 노랑게 물들이고 있으며, 그 노란 하늘을 배경으로 입에 꽃을 문 새 한 마리가 날아 오른다. 봉우리들이 몇 겹으로 겹친 산 속에는 어김없이 사찰이 자리하고 있어서 선비의 걸음을 재촉한다.

家族

"행복한 가족주의"

태양금속_은

변치 않는 믿음과 변치 않을 사랑으로
한결 같이 걸어온 가족애가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 가족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반세기를 걸어온 기업정신이 있습니다.
환한 미래를 열어갈 신뢰와 창조의 정신으로
百年大計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50年 半世紀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태양금속공업(주)